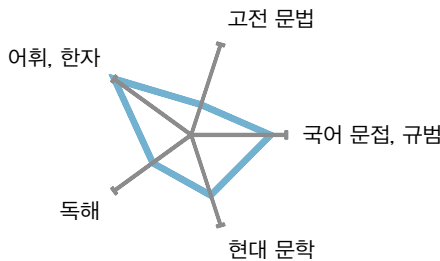


2017 서울시 9급 A책형 국어 총평 및 해설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험생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총평 및 해설을 올려 드립니다. 더 자세한 총평 및 해설 자료, 영상은 **지안합격예측서비스**에서 제공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서울시 9급 영역별 분석



영역	문항 수
국어 문법, 규범	5
고전 문법	2
어휘, 한자	6
독해	3
현대 문학	4

1. 총평

올해 서울시 문제는 영역별로 기존의 특색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험이었습니다. 우선 수험생의 입장에서 공부하기 까다롭고 어떤 정도까지 공부해야 할지 짐작하기 어려운 영역인 고전 문법이 작년에 이어 훈민정음과 그 변천 과정이 2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훈민정음의 기본적인 내용만 숙지하더라도 1문항은 쉽게 풀리는 문제였고, 나머지 1문항은 국어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는 내용이었으나, 굵직하게 정리해 두었다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수험 생활을 시작하는 처음부터 고전 문법을 파고들 필요는 없겠지만, 현대 문법을 꼼꼼하게 숙지하고, 이어 고전 문법의 굵직한 내용 위주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대 문법과 어문 규정은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작년의 경우 문법 영역에서 원리와 과정에 주목해서 해석하는 문제가 두드러지게 출제되었는데, 올해 역시 원리를 묻는 문제와 지식 형으로 바로바로 풀어내야 하는 문제가 고루 나왔습니다. 다만 단어 형성 원리를 묻는 문제는 한자어와 복합적으로 출제되어 풀어내기 까다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시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어 문법과 규범 영역은 지식적으로 암기하기 전에 현상이 일어나는 원리와 과정을 이해하며 학습해야 합니다.

지식 형의 문제가 강세인 서울시 문제에서 어휘 영역의 비중은 다른 시험보다 더욱 높습니다. '고유어, 한자어, 속담'으로 골고루 출제되었고, 까다로울 수 있는 한자어 문제는 기존 유형에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국가직과 지방직 문제에서도 서울시 유형과 같은 한자어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우선적으로 기출 한자 어휘부터 정확한 형태와 쓰임을 차근차근 꾸준히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문제는 고유어도 자주 꼼꼼하게 출제되고 있으므로, 서울시 문제에 주력한다면 어휘 영역 전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 유형에서 비문학 독해 영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도 1문항이 나오더라도 추론이나 논리적 흐름을 배열하는 문제 등으로 고차원적인 사고가 필요한 유형이 출제됩니다. 올해는 문맥적 흐름을 파악해서 추론해야 하는 문제가 1문항으로 나왔고, 비문학 독해에서조차 논리적 오류 유형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으니, 수험 기간 자주 출제되지 않는 영역이라도 고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학 영역에서는 모두 현대 문학이 출제되었는데, 서울시는 문학 영역도 지식 형의 문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 현대 문학사를 묻는 지식 형의 문제와 글의 종류별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독해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출 문제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특별히 지엽적인 지식 형 문제가 아니므로, 경향이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문학에 대한 기본 개념 위주로 공부하고, 단계를 밟아가며 심화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해설

문 1. 다음 중 제시된 단어의 표준 발음과 로마자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 ① 선릉[선능] - Seonneung
- ② 학여울[항녀울] - Hangnyeoul
- ③ 낙동강[낙똥강] - Nakddonggang
- ④ 집현전[지편전] - Jiphyeonjeon

〈정답〉 ②

〈해설〉

학여울[항녀울] - Hangnyeoul
 ‘ㄴ’ 첨가, 비음화는 음운 변동의 결과를 로마자 표기에 반영한다.

〈오답풀이〉

- ① 선릉[설릉] - Seolleung: 유음화로 음운의 변동 현상이 일어난다.
- ③ 낙동강[낙똥강] - Nakdonggang: 된소리되기는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④ 집현전[지편전] - Jiphyeonjeon: 체언의 자음 축약 현상은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교재참고〉

2017 문법 개념서 188쪽~

문 2.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은?

- ① 방학 동안 몸이 보는 바람에 작년에 산 옷이 맞지 않았다.
- ② 넉넉치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③ 오늘 뒤풀이는 길 건너에 있는 맥줏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④ 한문을 한글로 풀이한 이 책은 중세 국어의 자료로써 가치가 있다.

〈정답〉 ③

〈해설〉

뒤풀이[뒤:푸리]: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맥줏집[麥酒집][맥쭈집, 맥쭈집]: 순우리말인 ‘집’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로 뒤 단어의 초성이 ‘집[쭈]’으로 된소리 발음이 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오답풀이〉

- ① 몸이 보는 → 몸이 붙는
- ② 넉넉치 않은 → 넉넉지 않은
- ④ 국어의 자료로써 가치가 있다. → 국어의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교재참고〉

2017 문법 개념서 114쪽~

문 3. 다음 중 국어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띄어쓰기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규범화되었다.
- ② 주격 조사 '가'는 고대 국어에서부터 등장한다.
- ③ '·'는 17세기 이후의 문헌에서부터 나타나지 않는다.
- ④ ㅁ 은 15세기 중반까지 사용되다가 'ㅼ'로 변화하였다.

〈정답〉 ①

〈해설〉

띄어쓰기는 최초로 1896년「독립신문」에 반영되었고,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규범화되었다.

〈오답풀이〉

- ② 고대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이'만 존재했고, '가'는 16세기 후반에 나타나서 17세기에 들어 널리 확산되었다.
- ③ '·' (아래아)가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16C에 [ㅡ]로, 첫째 음절에서는 18세기에 [ㅏ]로 바뀌면서 음가가 소멸되었다. 표기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 ④ 'ㅁ(순경음비읍)'은 15세기 중반까지 사용되었다가 모음 앞에서 'ㅏ/ㅑ'로 변했다.

〈교재참고〉

2017 문법 개념서 210쪽~

문 4. 다음 문장들을 두괄식 문단으로 구성하고자 할 때, 문맥상 가장 먼저 와야 할 문장은?

㉠ 신라의 진평왕 때 놀최는 백제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병졸들에게, 봄날 온화한 기운에는 초목이 모두 번성하지만 겨울의 추위가 닥쳐오면 소나무와 잣나무는 늦도록 잎이 지지 않는다. ㉡ 이제 외로운 성은 원군도 없고 날로 더욱 위태로우니, 이것은 진실로 지사 의부가 절개를 다하고 이름을 드러낼 때 이다. 라고 훈시하였으며 분전하다가 죽었다. ㉢ 선비 정신은 의리 정신으로 표현되는 데서 그 강인성이 드러난다. ㉣ 죽죽(竹竹)도 대야성에서 백제 군사에 의하여 성이 함락될 때까지 항전하다가 항복을 권유받자,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죽죽이라 이름 지어 준 것은 내가 추운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으며 부러질지언정 굽힐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살아서 항복할 수 있겠는가. 라고 결의를 밝혔다.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해설〉

두괄식은 첫 문장에서 문단의 주제를 담고 있어야 한다.

〈오답풀이〉

나머지 문장은 ㉣의 구체적인 예이다.

〈교재참고〉

2017 비문학 개념서 16쪽~

문 5. 다음 중 <보기>의 시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 별 하나에 사랑과 /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 별 하나에 시와 /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 ① 화자는 어린 시절 친구들을 청자로 설정하여 내면을 고백하고 있다.
- ② 화자의 내면과 갈등관계에 있는 현실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별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내적 세계를 나타낸다.
- ④ 별은 현실 상황의 변화를 바라는 화자의 현실적 욕망을 상징한다.

〈정답〉 ③

〈해설〉

화자는 별을 보며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를 떠올리는 것으로 보아 화자가 지향하는 내적 세계라고 볼 수 있다.

※ 〈별 헤는 밤〉, 윤동주: 1948년 정음사에서 간행된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마지막에 수록된 윤동주의 시 작품으로, 연희전문학교 재학 시절인 1941년 11월 5일에 졸업을 앞두고 쓴 시로, 가을밤을 배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을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시의 전반부에서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여러 상념에 젖어드는 심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후반부로 갈수록 자아의 현실적인 고뇌와 자아성찰, 소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산문적인 리듬을 구사하여 호흡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 새로운 시도도 눈에 띄는 점이다.

〈교재참고〉

2017 문학 개념서 25쪽~

문 6. 다음 중 반의 관계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살다 - 죽다 ② 높다 - 낮다
- ③ 늙다 - 젊다 ④ 뜨겁다 - 차갑다

〈정답〉 ① 살다 - 죽다: 상보 반의어

〈해설〉

나머지 반의 관계는 정도 반의 관계

〈오답풀이〉

- ② 높다 - 낮다: 정도 반의 관계
- ③ 늙다 - 젊다: 정도 반의 관계
- ④ 뜨겁다 - 차갑다: 정도 반의 관계

〈교재참고〉

2017 문법 개념서 86쪽~

문 7. 다음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과 단어 형성 원리가 같은 것은?

개살구, 헛웃음, 낚시질, 지우개

- ① 건어물(乾魚物) ② 금지곡(禁止曲)
③ 한자음(漢字音) ④ 핵폭발(核爆發)

<정답> ①

<해설>

개살구: 접두사 '개-'와 명사 '살구'가 결합된 파생어

헛웃음: 접두사 '헛-'과 명사형 '웃음'이 결합된 파생어

낚시질: 명사 '낚시'와 접미사 '-질'이 결합된 파생어

지우개: '지우다'의 어간 '지우-'와 접미사 '-개'가 결합된 파생어

건어물(乾魚物): 접두사 '건-'과 명사 '어물'이 결합된 파생어

<오답풀이>

- ② 금지곡(禁止曲): 명사 '금지'와 명사 '곡'이 결합된 합성어
③ 한자음(漢字音): 명사 '한자'와 명사 '음'이 결합된 합성어
④ 핵폭발(核爆發): 명사 '핵'과 명사 '폭발'이 결합된 합성어

<교재참고>

2017 문법 개념서 42쪽~

문 8. 다음 중 한글 창제 당시 초성 17자에 포함되지 않는 글자가 쓰인 것은?

- ① 님금 ② 늦거사 ③ 바울 ④ 가빅야본

<정답> ④

<해설>

'방'은 초성17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자(基本字)	가획자(加劃字)	이체자(異體字)
어금닛소리(아음牙音)	ㄱ	ㅋ	ㆁ
혓소리 (설음舌音)	ㄴ	ㄷ, ㅌ	ㄹ
입술소리 (순음脣音)	ㅁ	ㅂ, ㅍ	
잇소리 (치음齒音)	ㅇ	ㅈ, ㅊ	ㅊ
목소리 (후음喉音)	ㅇ	ㅎ, ㅎ	

<교재참고>

2017 문법 개념서 210쪽~

문 9. 다음 예문과 같은 유형의 논리적 오류가 나타난 것은?

이 식당은 요즘 SNS에서 굉장히 뜨고 있어. 그러니까 엄청 맛있을 거야.

- ① 이 식당 음식을 꼭 먹어보도록 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집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맛이 괜찮은가 봐.
- ② 누구도 이 식당이 맛있다고 말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엄청 맛있는 집이란 소리지.
- ③ 여기는 유명한 개그맨이 맛있다고 한 식당이니까 당연히 맛있겠지. 그러니까 꼭 여기서 먹어야 해.
- ④ 이번에는 이 식당에서 밥을 먹자. 내가 얼마나 여기서 먹어 보고 싶었는지 몰라. 꼭 한번 오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랐어.

〈정답〉 ①

〈해설〉

예문은 ‘군중 심리에의 호소’이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집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탕으로 맛있는 집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오류 유형이다.

〈오답풀이〉

- ② 무지에의 호소
- ③ 부적합한 권위의 호소
- ④ 논리적 오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교재참고〉

2017 비문학 개념서 30쪽~

문 10. 다음 글에 나타난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내 이상과 계획은 이렇거든요.
우리집 다이쇼*가 나를 자별히 귀애하고 신용을 하니까 인제
한 십 년만 더 있으면 한말천 들어서 따로 장사를 시켜 줄 그런
눈치거든요.
그러거들랑 그것을 언덕삼아 가지고 나는 삼십 년 동안
예순 살 환갑까지만 장사를 해서 꼭 십만 원을 모을 작정이지요.
십만 원이면 죄선* 부자로 쳐도 천석꾼이니, 뭐 땡땡거리고
살 게 아니라구요?
그리고 우리 다이쇼도 한 말이 있고 하니까, 나는 내지인*
규수한테로 장가를 들래요. 다이쇼가 다 알아서 암전한 자리를
골라 중매까지 서준다고 그랬어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요.
나는 죄선 여자는 거저 주어도 싫어요.
구식 여자는 암전은 해도 무식해서 내지인하고 교제하는 데
안됐고, 신식 여자는 식자나 들었다는 게 건방져서 못쓰고,
도무지 그래서 죄선 여자는 산식이고 구식이고 다 제바리여요.
내지 여자가 참 좋지 뭐. 인물이 개개 일자로 이쁘겠다, 암전
하겠다, 상냥하겠다, 지식이 있어도 건방지지 않겠다, 좀이나 좋아!
그리고 내지 여자한테 장가만 드는 게 아니라 성명도 내지인
성명으로 갈고 집도 내지인 집에서 살고 옷도 내지 옷을 입고
밥도 내지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지인 이름을 지어서 내지인
학교에 보내고…….
내지인 학교라야지 죄선 학교는 너절해서 아이들 버려 놓기나
꼭 알맞지요.
그리고 나도 죄선말은 싹 걷어치우고 국어만 쓰고요.
이렇게 다 생활법칙부터도 내지인처럼 해야만 돈도 내지인
처럼 잘 모으게 되거든요.
* 다이쇼: 주인 * 죄선: 조선 * 내지인: 일본인

- ① 서술자가 내지인을 비판함으로써 자기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전지적 존재로서 인물과 사건을 모두 조망할 수 있다.
- ③ 서술자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의 내면을 추리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서, 독자로 하여금 서술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정답〉 ④

〈해설〉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서술자가 일본 제국주의에 영합하려는 태도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으므로, 서술자는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서, 독자로 하여금 서술자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 〈치숙〉, 채만식

소년이 혼자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전개되는 소설로 채만식의 단편 풍자소설이다. 1938년 <동아일보>에 연재되던 작품으로 일제 강점기 지식인의 고뇌와 시대에 순응하려는 기회주의자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다. 일제의 온갖 탄압과 수탈이 행해지던 시대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1인칭 관찰자 수법의 소설이다. 무지한 조카의 눈에 비친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옥살이를 하고 나온 삼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오답풀이〉

- ① 서술자 '나'는 내지인을 선호한다.
- ② 작품에 '나'가 드러나는 1인칭 시점이다.
- ③ 서술자는 자신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교재참고〉

2017 문학 개념서 132쪽~

문 11. 다음 <보기>의 속담과 가장 관련이 깊은 말은?

- ㉠ 가물에 도랑 친다
㉡ 까마귀 미역 감듯

- ① 헛수고 ② 분주함
③ 성급함 ④ 뒷고생

<정답> ①

<해설>

- 가물에 도랑 친다: 한창 가물 때 애쓰며 도랑을 치느라고 분주하게 군다는 뜻으로, 아무 보람도 없는 헛된 일을 하느라고 부산스레 몹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까마귀 미역 감듯: 까마귀는 미역을 감아도 그냥 검다는 데서, 일한 자취나 보람이 드러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교재참고>

2017 어휘 개념서 79쪽~

문 12. 다음 중 한자어와 독음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陶冶- 도치 ② 改悛- 개전
③ 殺到- 살도 ④ 汨沒- 일몰

<정답> ②

<해설>

- ② 改悛- 고칠 개, 고칠 전: 행실이나 태도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음

<오답풀이>

- ① 陶冶- 질그릇 도, 풀무 야: 도공과 주물공. 또는, 도기를 만드는 일과 주물을 만드는 일, 심신을 닦아 기를
③ 殺到- 빠를 쇠, 이를 도: 세차게 몰려듦
④ 汨沒- 골몰할 골, 빠질 몰: 다른 생각을 일절 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만 온 정신을 쏟음.

<교재참고>

2017 어휘 개념서 150쪽~

문 13. 다음 <보기> 중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창 밖은 가을이다. 남쪽으로 난 창으로 햇빛은 하루하루 깊이 안을 넘본다. 창가에 놓인 우단 의자는 부드러운 잿빛이다. 그러나 손으로 ㉡ 우단천을 걸과 반대 방향으로 쓸면 슬쩍 녹듯빛이 돈다. 처음엔 짙은 색색이었다. 그 의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 30년 동안은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하는 일이라곤 햇볕에 자신의 몸을 잿빛으로 바라는 ㉣일 밖에 없다.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해설>

③ 30년 동안: 의존 명사인 '년'은 띄어 쓴다. 다만, 의존 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는 경우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오답풀이>

- ① 창밖: '창'과 '밖'이 결합한 합성어
② 우단 천: 각각의 단어
④ 일밖에: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 '밖에'

문 14. 다음 <보기>의 ㉠~㉣ 중 주어가 다른 하나는?

진찰의 첫 단계로 임상심리 검사를 시작해 보니 환자의 증세가 참으로 특이하더군요. 도대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진술 거부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터무니없이 불안해하거나 자기 생각을 거짓말로 슬슬 ㉠ 속여 넘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덮어놓고 자기의 머리가 이상해진 게 틀림없다고 고집이지 뭡니까. 아니 거짓말을 하거나 불안해 하는 것도 모두 그렇게 자기의 머리가 이상해진 것을 확인 시키려는 노력에서 ㉡ 그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도 물론 나중까지 환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받아 놓지 않은 건 아니었지요. 한데 나중에 보호자 ㉢ 연락을 취해 보니 그것도 모두가 거짓말이었던 말입니다. 그런 주소에 그런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환자에게 다시 진짜를 대보라고 했지만 어디 대답이 쉽습니까. 게다가 이 환자는 소지품 중에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만한 것을 ㉣ 지니고 있지 않았어요.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해설>

㉢의 주어만 '우리'이고 나머지는 '환자'가 주어이다.

<교재참고>

2017 문법 개념서 63쪽~

문 15. 다음 예문에 제시된 시사(詩史)의 전개가 순서에 맞게 배열된 것은?

- ㉠ 농민의 애환을 다룬 신경림의 농무를 비롯하여, 고은이나 김지하 등 참여 시인들의 작품은 현실에 저항하는 문학의 실천성을 보여주었다.
- ㉡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 이 출간되어 이 시기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떠올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KAPF)이 결성되어 리얼리즘 계열의 시가 창작되기도 했다.
- ㉢ 전쟁에 참여한 시인들은 선전 선동시 등을 창작하기도 했으나 구상의 초토의 시 처럼 황폐화된 국토의 모습을 통해 전쟁이 남긴 비극을 그려내는 작품들이 나타났다.
- ㉣ 모더니즘 시운동을 선도한 시인들이 도시적 감수성을 세련된 기교로 노래했다. 김기림은 장시 기상도 를 통해 현대 문명을 비판했다.

- ①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정답〉 ②

〈해설〉

- ㉠ 1920년대
- ㉡ 1930년대
- ㉢ 1950년대
- ㉣ 1970년대

〈교재참고〉

2017 문학 개념서 136쪽~

문 16. 다음 중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닐대다-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살갗에 간지럽고 자릿한 느낌이 자꾸 들다.
- ② 굴적대다 - 느리고 폭이 넓게 자꾸 물결치다.
- ③ 꼬약대다 - 음식 따위를 한꺼번에 입에 많이 넣고 잇따라 조금씩 씹다.
- ④ 끌끌대다 - 마음에 마땅찮아 허를 찌는 소리를 자꾸 내다.

〈정답〉 ②

〈해설〉

- ② 굴적대다 - 동사, 느리고 폭이 넓게 자꾸 물결치다.

〈오답풀이〉

- ① 가닐대다- 동사,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살갗에 간지럽고 자릿한 느낌이 자꾸 들다
- ③ 꼬약대다 -동사, 음식 따위를 한꺼번에 입에 많이 넣고 잇따라 조금씩 씹다, 좁은 데로 많은 사람이나 사물이 잇따라 물러가거나 들어오다, 연기나 김 따위가 계속 나오거나 생기다
- ④ 끌끌대다 - 동사, 트림하는 소리가 자꾸 나다

〈교재참고〉

2017 어휘 개념서 82쪽~

문 17.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한자어로 적합한 것은?

토의는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기 위한 공동의 사고 과정이다. 이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와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가능한 대안들을 도출해야 한다. 그리고 대안의 선택에 필요한 판단 준거를 토대로 대안을 분석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 ① 토의 - 討義 ② 사고 - 思考 ③ 선택 - 先擇 ④ 준거 - 準舉

〈정답〉 ②

〈해설〉

② 思考(생각 사, 생각할 고): 생각하고 공리함

〈오답풀이〉

- ① 討議(칠 토, 의논할 의): 어떤 사물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을 내걸어 검토하고 협의하는 일
※ 義(옳을 의)
③ 選擇(가릴 선, 가릴 택): ① 여럿 가운데서 골라 뽑음, 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수단을 의식하고, 그 어느 것을 골라내는 작용
※ 先(먼저 선)
④ 準據(준할 준, 근거 거): 일정한 기준에 의거함
※ 舉(들 거)

〈교재참고〉

2017 어휘 개념서 150쪽~

문 18. 음운 현상은 변동의 양상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다음 중 음운 현상의 유형이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하나는?

- ㉠ 대치 - 한 음소가 다른 음소로 바뀌는 음운 현상
㉡ 탈락 - 한 음소가 없어지는 음운 현상
㉢ 첨가 - 없던 음소가 새로 끼어드는 음운 현상
㉣ 축약 - 두 음소가 합쳐져 다른 음소로 바뀌는 음운 현상
㉤ 도치 - 두 음소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음운 현상

- ① 국+만 → [궁만] ② 물+난리 → [물랄리]
③ 입+고 → [입꼬] ④ 한+여름 → [한녀름]

〈정답〉 ④

〈해설〉

④ 한+여름 → [한녀름]: ‘ㄴ’ 첨가는 ㉣ 첨가

〈오답풀이〉

- ① 국+만 → [궁만]: 비음화는 ㉠ 대치
② 물+난리 → [물랄리]: 유음화는 ㉠ 대치
③ 입+고 → [입꼬]: 된소리되기(=경음화 현상)는 ㉠ 대치

〈교재참고〉

2017 문법 개념서 35쪽~

2017년 06월 24일

총평/해설 : 강현아

문 19. 문맥상 다음 ㉠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의 역사가 발전과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자연사는 무한한 반복 속에서 반복을 반복할 뿐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1844년의 경제학 철학 수고 말미에, 역사는 인간의 진정한 자연사이다라고 적은 바 있다. 또한 인간의 활동에 대립과 통일이 있듯이, 자연의 내부에서도 대립과 통일은 존재한다. (㉠) 마르크스의 진의(眞意) 또한 인간의 역사와 자연사의 변증법적 지양과 일여(一如)한 합일을 지향했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 ① 즉 인간과 자연은 상호 간에 필연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
- ② 따라서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를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파악하는 것은 위험하다.
- ③ 즉 자연이 인간의 세계에 흡수 통합됨으로써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다.
- ④ 그러나 인간사를 연구하는 일은 자연사를 연구하는 일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정답〉 ②

〈해설〉

㉠의 앞뒤 문맥을 파악하면, 앞은 인간과 자연의 공통점에 주목하고 뒤의 내용 역시 인간 역사와 자연사의 합일을 지향했다는 내용이 나오므로, ㉠에 인간과 자연의 역사를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파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내용이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교재참고〉

2017 비문학 개념서 16쪽~

문 20. 다음 〈보기〉의 글 다음에 나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재작년이던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날씨가 화창하여 밀린 빨래를 해치웠었다. 성미가 비교적 급한 나는 빨래를 하더라도 그날로 풀을 먹여 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찜찜해서 심기가 홀가분하지 않다. 그날도 여름 옷가지를 빨아 다리고 나서 노곤해진 몸으로 마루에 누워 쉬려던 참이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서까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로 돌아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하,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으로.

- ① 자연 속에서 무소유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 ② 성실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 ③ 종교적 의지를 통해 현실을 초월해야 한다. ④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한다.

〈정답〉 ④

〈해설〉

제시문 다음에 올 내용을 찾는 것이므로, 뒷부분에 주목하면, 갑자기 산이 달리 보이고, 심지어 산을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려다보는 모습을 하고 있으므로 고정관념을 탈피했다는 내용이 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법정, 〈거꾸로 보기〉는 틀에 박히고 일상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대상의 모습을 발견하는 새로운 관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글이다.

〈교재참고〉 2017 문학 개념서 237쪽~